

윤석열 대통령 "한미양국은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 토드 영(Todd Young) 미 상원의원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토드 영 상원의원의 첫 방문을 환영하고, 토드 영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한미동맹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

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역내안보 및 평화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토드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

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토드 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토드 영 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미 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토드 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의 국민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 의회 내에서 대통령님에 대한 강력한 호감과 지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코커스 확대 및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건의사업 4조 4,540억원 반영!

미반영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끝까지 총력 다할 것!

경북도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의 국가투자사업 건의사업이 4조 4,540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 4조 4,360억원 대비 18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의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5조 5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분야별 2024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으로는,

- (SOC)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62개사업 2조 5,163억원
- (경제·산업)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 114개사업 4,864억원



- (농림·해양) 첨단농기계 실증팹팩토리 조성 등 74개사업 4,680억원
- (문화·환경)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82개사업 7,922억원
- (재난·복지 기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30개 사업 1,912억원 등이다.

향후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예산안 미반영 건의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진정한 지방시대를 지방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 국회의원 공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와 체전 성공 기원 결의

안전, 교통·청결·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 등 협력 한목소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22개 시군 시장·군수와 함께 목포시종합경기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기원대회를 열어 안전과 교통·청결·친절, 바가지요금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지사와, 시장·군수,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전 준비상황에 대한 김기홍 관광체육국장과 목포시 소영호 부시장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 도지사 주재로 성공 개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체전 기간 안전과 교통·청결·친절 문제를 비롯해 체전 분위기 불응을 위한 도·시군 간 협력 사항을 협의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개·폐회식 등 관람객의 다중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화 봉송로 주변 하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테러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가 많은 목포시에서는 차량 2부제 운영을 검토하고, 선수단 숙소 인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청결한 경기장 운영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1일 1회 암물박스를 운영하고, 숙박·외식업종 바가지 요금과 숙박 예약 거부 근절 등 친절·청결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민 대화합 한마당으로 전남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이 15만여 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전 기간 안전하고 즐겁고 편안한 전남 방문이 이뤄지도록 시장·군수의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그동안 전국단위 행사는 물론,

세계적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면서 '하면 된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었고, 또한 해낼 수 있는 저력도 갖겠다"며 "이번 전국체전은 생명의 땅 전남에서 국민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국민감동체전, 나아가 미래희망체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도 당면 현안과 시군 건의·협조 사항 논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 개최

삼성전자가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The Samsung Developer Conference 2023, 이하 'SDC23')'을 10월 5일(미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Moscone Center)에서 개최한다.

2013년 시작돼 올해로 9번째를 맞는 SDC는 전세계 개발자들의 축제로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서비스·플랫폼 비전과 혁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행사이다.

삼성전자는 SDC23에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SDC는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총희 부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다. 한 부회장은 플랫폼 혁신과 에코시스템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비전을 발표한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 삼성 Knox, 빅스비(Bixby) 등 전사 플랫폼 혁신 ▲타이젠 기반의 스크린 경험 확장 ▲갤럭시 One UI를 통한 고객 경험 차별화 ▲헬스와 홈(Health & Home) 경험의 진화 등 각 분야별 전략도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통해 소개된다.

차세대 연결 경험 제공을 위한 개발자·파트너들과의 협력 방안과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플랫폼의 업데이트 계획도 공유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시연과 개발 툴킷(Toolkit) 공유 등 다양한 세션이 함께 운영된다. 코딩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운영되는 '코드 랩(Code Lab)'을 통해 직접 코딩에 참여해보고 삼성전자 개발자들에게 관련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SDC23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삼성 개발자 사이트 (<http://developer.samsung.com/sdc>)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는 초청에 의해서만 참석이 가능했다.

SDC23의 기조연설과 주요 세션들은 행사 시점에 삼성전자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SDC2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http://developer.samsung.com/sdc>)와 트위터(@Samsung_dev), 페이스북(@Samsungd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개최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인 SDC(Samsung Software Developer Conference)를 금년부터 글로벌 SDC와 연계해 SDC Korea(11월 14~15일)로 명칭을 바꿔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더욱 강화된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 울타리',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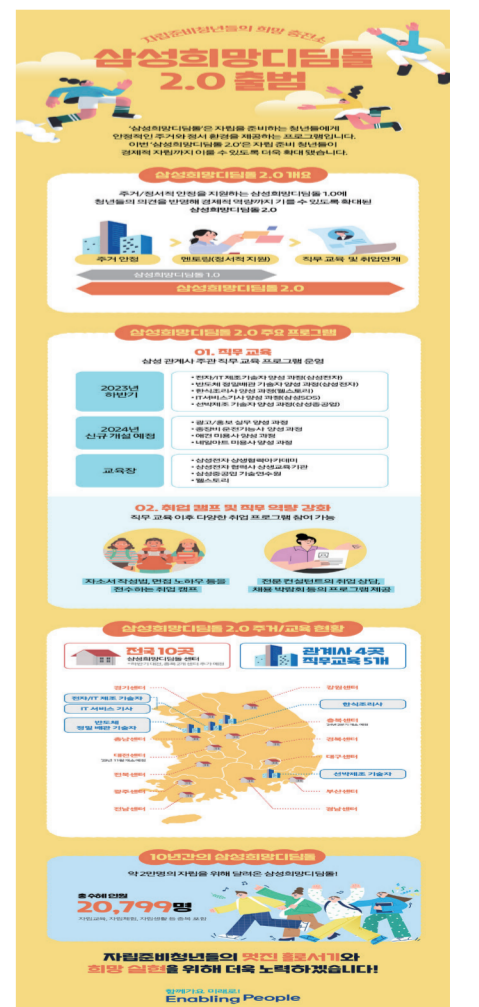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홀로살기를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이 2.0으로 진화했다. 지난 2013년 임직원의 아이디어와 기부에서 시작한 '삼성희망디딤돌'은 보호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을 통해 전국 12개 광역 지자체에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공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삼성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노력을 바탕으로 취업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이 같은 마음과 뜻을 모았다. 삼성과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더욱 단단해진 청년들의 희망 울타리 '삼성희망디딤돌 2.0'의 주요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해 보자.

김범상/기자



경북도의회 임병하도의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 선형개량 촉구!

영주댐 레포츠시설 및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소백산 관광 집중 촉구



경북도의회 임병하(영주1·국민의힘)은 29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소백산 등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 선형개량, 산사태 등 수해 대책,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상북도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임병하 의원은 “경북은 유서 깊은 역사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정책과 지원 예산은

대부분 경주, 안동 등 특정 지역에만 편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지역적 배려와 함께 대한민국 10대 명산인 소백산이 위치한 영주시에 체계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같은 소백산을 접경지에 둔 충북 단양군과 영주시의 관광정책 관련 예산을 비교했을 때 7배나 단양군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의 관문인 영주시의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과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소백산 관광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영주 진주-부석간 도로’와 관련해

“2025년 6월 준공예정인 ‘마구령터널’이 개통되면 충북 단양-강원 영월에서 경북 영주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개선되어 경북도 방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마구령터널을 지나 영주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935번 진우-부석간 도로’는 많은 교통량 대비 협소

한 노폭·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열악한 도로”라고 지적하며, “현재 구간별로 진행되고 있는 선형개량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로선형개량 사업은 한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 이미지 제고와 경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가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 관문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선형개량과 왕복 4차선 확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다음으로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임 의원은 “7월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목숨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작년 태풍 힌남노가 남긴 피해 복구 조차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북도가 약속하는 풍수해 예

방과 복구대책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더 절실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지원이다.”고 강조하면서, “경북도가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게 아니라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북도 자체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교권침해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많은 위기 학생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미흡한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영유아 아이들부터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개별 유치원에만 맡겨져 있을 뿐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추진, 관리·감독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 의원은 도교육청에 인성교육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경북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서동욱 전남도지사, “차별화된 가치로 전통시장 매력 널리 알리길”

25일, 제2회 전통시장 상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2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제2회 전통시장 상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전남상인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신민호, 이재태, 한숙경 도의원, 김영록 도지사,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등 유관기관과 전통시장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환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개막식과 전라남도 상인상과 유공 표창 수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결의 퍼포먼스, 전라남도 상인 비전 선포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했다.

서동욱 의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에 이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절벽까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지역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급변하는 온라인·디지털 시대에서도 전통시장이 갖는 가치는 충분하다”며 “전통시장은 정보 공유, 문화 향유, 사회적 결속 등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물에는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실현해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서민의 삶과 직결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춰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배/기자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성료!

지난 10년간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 양산한 정책 바로잡고 질적성장 뒷받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연구 단체인 서울미래정책연구회(회장 박상혁)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건국대학교 KU중국어원 공동 주최로 8월 28일 16: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외 지방정부 사례를 통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우리보다 앞서 시민단체의 질적 성장을 일궈낸 영국 런던과 일본 도쿄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을 살펴보고, 서울시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소속 의원(김종길·박상혁·장태용·허훈·황철규)은 지난 7월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김용민 건국대학교 KU중국어원 조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이지역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조교수와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도쿄와 런던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정책을 주제로 발제했고, 임태훈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와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발제 내용은 일본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시민단체의 재정자립과 지속성을 위해 펀드 및 기금을 운용하며, 시민단체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테마별·목적별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시민펀드나 런던의 문화씨앗기금, 런던크라우

드펀드 등과 같이 기금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 지원을 통해 시민단체의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정치경제적 분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회의실에서 진행된 ‘해외 지방정부 사례를 통한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울미래정책연구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미래정책연구회’는 서울시가 지향할 미래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이며, 공공성과 자생력을 갖춘 시민단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서울시가 선진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대표 발주한 장태용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서울시 시민단체는 양적으로는 급격히 팽창했지만 보조금에 의존하며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시민단체로 성장해왔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와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서울시 정책에 충실히 녹여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시민단체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서국보 부산시의원, 명장정수장 통합사업소 부지공원화 설계용역 보고회 가저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시설 계획 포함하여 부산 15분도시 정책에 맞는 기능이 반영되도록 할 것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지난 25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동래통합

사업소 부지 공원화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동래통합사업소 부지내 유휴공간에 지역주민이 공

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공원화사업 용역은 동래구 명장동 333번지 일원에 위치한 명장정수장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13,182㎡(4,000평)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명장정수장은 부산시에서 가장 노후된 사회기반시설로 시설개선 필요성이 검토되면서 최근 십 수년간 정수장의 이전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명장정수장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도심에 단절된 공간으로 있는 명장정수장 통합사업소 부지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용역이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용역의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활용 계획은 전혀 없이 명장정수장 내 부지에 있는 통합사업소 청사 정비, 주차장 축소, 잔디마당 설치 등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사항만 포함하고 있다.

이날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공원화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참석한 김희곤 국회의원은 수 십년간 단절되어 있던 부지를 단지 공원으로만 조성하기에는 그간 희생해온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국보 의원 또한 동래통합사업소 부지는 도심에 위치한 공유재산인 만큼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정책에 맞게 단순 공원의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폐쇄했던 부지를 개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산시의 국회의원 부산시당은 부산시청에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 김희곤 국회의원은 박형준 시장에게 명장정수장 동래통합사업소 부지내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 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드라이브’ 강행군 막바지에 이르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단, 고양·연천·동두천·가평·남양주시 5차 투어 진행...22개 시·군 방문 마쳐

23개 시·군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드라이브’ 투어 강행군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도의회 국민의힘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해형 수석대변인, 이해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29일 ‘정책 드라이브’ 5차 투어 일정으로 고양·연천·동두천·가평·남양주시(방문 순) 방문했다.

이날 시·군별로 열린 ‘정책 드라이브’ 정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윤종영(연천)·임상오(동두천2)·임광현(가평)·이석균(남양주1)·정경자(비례) 의원 등 지역별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시내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사업비 부담률 조정 ▲연천군은 테마형 접경지역 조성,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동두천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북부지역 도비 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 확대 ▲가평군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전략 미착수 사업 예산 지원 ▲남양주시는 국가민속문화재 ‘궁집’의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정책 드라이브는 시·군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적 협력을 도모할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군과 소통을 이어가며 제안된 정책들이 경기도에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총 22개 시·군을 돌며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4일 김포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첫 정책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의원맞춤형 교육 진행

무자비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보를 선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키워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김태희 단장, 안산2)이 2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1에서 의원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평택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 김동희의원(부천6), 청년지원단 전자영 부단장(용인4), 문승호(성남1), 박상현(부천8), 오지훈(하남3), 이자형(비례), 최민(광명2) 의원 등이 참석했다.

1강은 ‘곧대 정치의 위기, 90년대생의 정치질’ 책을 펴낸 황희두 작가의 ‘온라인 전투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황희두 작가는 현재 사람들은 세상 무한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강사는 “인공지능, 핫 GTP의 시대가 도래한 요즘 무자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해 내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원들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호

과적으로 전달하지 고민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은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강원구 대표가 ‘유권자 지형 변화에 따른 의정활동 전략’의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원구 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환경도 크게 변화했다”면서 유권자 타겟팅 ▲DB 재구성 ▲정책과 메시지 전략 ▲시대 공감기 아니냐 세대 공감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2024년 총선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좀 더 총출한 전략을 구상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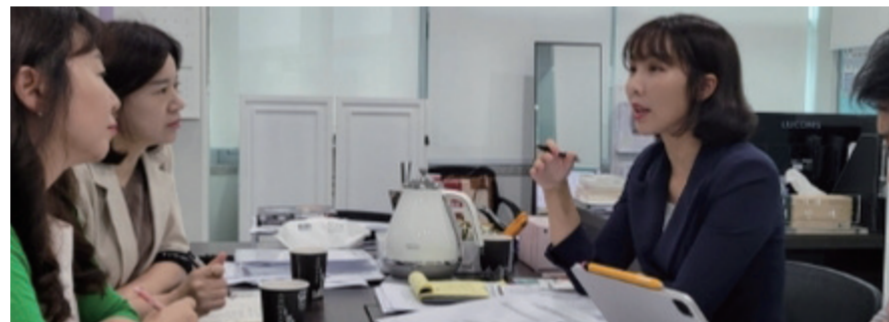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은 그동안 청년정책 발굴 및 선배 의원 초청 간담회 등을 펼쳐왔다. 향후 의원 역량 개발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 지속적인 의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해야

폐암 확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2)은 28일 조우경 다음세대를 위한 학부모연대표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아동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부모 단체가 조사한 ‘아이들에게 유해한 성교육 도

서 목록’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 도서의 일부 부적절성에 대한 일부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그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인애 의원은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무분별하고 여과없는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한 내용이 그 선을 넘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세 아이의 엄마와 부모, 교육자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울 성교육 도서중 일부가 지나친 성적 표현과 묘사, 그리고 구체적인 삽화와 그림을 담고 있다”면서, “누구라도 처음보는 순간 표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과 ‘이건 아니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아동의 성교육의 목적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를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교육 내용의 구성과 관련 교재 및 도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과업에 맞는 교육적 가치와 수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고 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다학연 조우경 대표는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권의 성교육 도서중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성행위 방법·성적 표현 등이 일부 묘사되어 있다.”며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도한 성적 자극과 잘못된 성교육이 우려되니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경기도의 초·중·고 학교 도서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 관련 부적절 도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위해 학생 수업 멈추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9월 4일 추모에 대해 시간과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라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모든 교육가족과 국민들도 이 과

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원 집회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가 ‘잘못됐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학생 수업이 보장되면 하지 말라 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모두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9월 4일 집회를 찬성하면 교원 회복에 동참한다고 해석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교원 회복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 현장 교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방향을 달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공동된 입장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정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방향 모색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8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어린이집연합회 신현영 회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및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군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

을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균등한 급식비 지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처우개선 및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 활동 제공을 위해 폐교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권고사항 “적극 환영”

전국 광역단체 평균 지급액은 9.2만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9일,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 추진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는 ‘광역단체 참전수당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체 광역단체 지급액 평균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경기(3.3만원)를 비롯 총 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수당은 전국 평균 이하일 뿐 아니라 도내 시·군별로 지원액이 달라 실제 참전수당은 참전용사 어르신에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병원은 전국 515개로, 경기도 81개, 서울시 60개, 전라남도 58개 순이며, 국가보훈처 지정 우수위탁병원은 서

울(3개), 부산(2개), 대전(2개), 대구(2개), 광주(2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수는 전국의 24%에 해당되지만, 위탁병원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치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보훈 위탁병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참전수당 역시 전국 하위권이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 어르신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과의 면담을 희망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참전수당 인상과 함께 고령의 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민선8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수원시 복지 정책·사업 방향 설명

수원시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비롯한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수원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수원시는 주거·경제 부담, 정서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9월 중 구성되는 '1인 가구 종합 컨트롤타워'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 ▲신규 사업 발굴·활성화 방안 논의 ▲1인 가구 시민 홍보 자료 제작 등 역할을 하게 된다.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맞춤형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맞춤형플랫폼에서는 1인 가구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 대학가,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부동산·재무법률·생활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1인가구 스테이션'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란자 국장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란자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형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 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분야 13종 서비스가 있다.

8월 24일 현재 시민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박란자 국장은 "수원새빛돌봄이 '빈틈없는 복지 돌봄망'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까지 44개 모든 동으로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대응하는 일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온실가스 저감 '효자'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9월부터 확대 운영

온실가스 127톤 저감...올해부터 우유팩·멸균팩도 수거

고양특례시가 시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원순환가게'를 9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확대 운영에 따라 장소도 2개소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재활용품 품목도 늘어난다.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장려한다. 시민에게 '비우고, 행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분리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이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 혹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양특례시는 2021년 단독주택지역에서 자원순환가게 1호점을 시범 운영한 것에 이어서 2022년 트럭을 활용한 '달리는 고양 재활용가게(이동식 재활용가게)'를 도입했다. 올해는 재활용품 품목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확대 운영되는 자원순환가게는 2개소(주교동, 행신4동)가 늘어난 덕양구 5개소, 일산동구 6개소, 일산서구 5개소 총 16개소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이팩(우유팩 및 멸균팩)도 수거한다.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무색, 유색, 판 페트(PET)와 플라스틱류(PE, PP, PS, OTHER), 캔류(알루미늄, 철), 종이류(종이박스, 종이팩)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

인트는 고양시 지역화폐(또는 현금)로 전환할 수 있다.

무색 페트(PET)는 개당 10원, 유색·판 페트(PET)는 1kg당 100원, 플라스틱류는 1kg당 150원, 알루미늄캔은 1kg당 600원, 철캔은 100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년째를 맞는 고양시 자원순환가게는 127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해 온실가스 감축 부문 '효자'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약 2,700 세대가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할 정도로 시민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특히 가게에 자원순환 활동가가 상주해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기 때문에 주민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감량에도 일조하고 있다.

정발산동에서 자원순환가게에 참여하고 있는 박정옥 활동가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아주 높다. 자원순환가게를 홍보하면 그 시민이 다른 이웃을 데리고 플라스틱을 모아올 정도다. 재활용을 실천하면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자원순환가게는 서울시 서대문구와 경기도 양평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전국적인 재활용품 순환 우수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한영기/기자

고양 자원순환가게

본곳이 분리한 재활용품을 현금 또는 고양화폐로 보상해 드립니다.

2023년 4월~12월 | 매주 14:00~17:00

운영장소	보상품목
1.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무색 PET(500ml)
2.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유색 PET(500ml)
3.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판 PET(PP/PS)
4.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플라스틱(OTHER)
5.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캔류
6.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종이류
7.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종이팩
8.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멸균팩
9.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종이팩
10. 덕양구 주교동 자원순환가게	멸균팩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이용안내

1.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이용안내
2. 고양시 홈페이지
3.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이용안내
4.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이용안내

필요한 분리배출 기본상식

1. 재활용
2. 분리배출
3. 재활용
4. 재활용

문의: 고양시 자원순환가게 02-940-9000



화성시, '화성 테크노폴 정책 자문단' 현장 방문 맞춤형 자문 회의 개최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화성시-KAIST 사이언스 허브 등 현장 방문

화성시가 29일 화성 테크노폴 정책 자문단 2차 회의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현장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내 위치한 창업지원플랫폼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 올 하반기 구축 예정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동탄 롯데백화점 내 화성시-KAIST 사이언스 허브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을 직접 방문했다.

또한, 현장 방문에 이어 동탄권역 기업지원시설을 비롯한 권역별 테크노폴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자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자문위원들이 화성시 관내 시설들을 직접 봄으로써 더욱 현실성 있는 자문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회의를 열어 권역별 테크노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성남시 도서관 한 바퀴' 16곳 도장 찍기 여행하면 인센티브

도서관별 독서의 달 행사 다채...가족 백일장, 독후 감상화 대회, 독서 골든벨 등

다같이 즐겨 성남시도서관 한 바퀴

성남시 공공도서관 16곳에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은 횟수가 2개 이상이면, 1000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성남시 16개 공공도서관에 도장 찍기

2. 도장 찍기 여행

3. 독후 감상화 대회

4. 독서 골든벨 대회

5. 가족 백일장

6. 독서 공감 슬로건 공모 행사

7. 중원도서관은 같은 기간 독후 감상화 대회를 연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16곳에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은 횟수가 2개 이상이면, 1000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성남시 16개 공공도서관에 도장 찍기

도장 찍기 여행

독후 감상화 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

가족 백일장

독서 공감 슬로건 공모 행사

중원도서관은 같은 기간 독후 감상화 대회를 연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16곳에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은 횟수가 2개 이상이면, 1000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성남시 16개 공공도서관에 도장 찍기

도장 찍기 여행

독후 감상화 대회

독서 골든벨 대회

가족 백일장

독서 공감 슬로건 공모 행사

중원도서관은 같은 기간 독후 감상화 대회를 연다.

성남시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간 '다 같이 즐겨 성남시 도서관 한 바퀴' 스탬프 투어(도장 찍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투어 용지에 지도로 표시된 16곳 성남시 공공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빌리고서 확인 도장을 찍으면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도장 1개를 찍을 때마다 도서 대출 권수를 2권씩 확대한다.

도장 5개를 찍으면 도서관 가방을 주고, 16개를 모두 찍으면 선착순 300명에 커피 1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도장 찍기 여행 외에도 도서관별 다채로운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수정도서관은 오는 9월 12일~10월 13일 가족 백일장, 독서 공감 슬로건 공모 행사를, 중원도서관은 같은 기간 독후 감상화 대회를 연다.

판교도서관은 오는 9월 16일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를 초청해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중앙도서관은 오는 9월 20일 이낙준 웹소설 작가 초청 특강을 연다.

중앙도서관 내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에선 오는 9월 23일 '제1회 독서 골든벨 대회'가 열린다.

이외에 중원도서관은 마술쇼 '사랑의 라이트 쇼(9.3)', 분당도서관은 어린이 인형극(9.16), 수정도서관은 '패밀리 마술+벌룬 쇼(9.16)', 구미도서관은 '오즈의 마법사 공연(9.20)'을 연다.

김범상/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용인시박물관 소장 포은선생문집, 경기도 문화재 지정

1607년 영천군수 황여일 발문 수록돼 간행 경위 파악할 수 있는 희귀 판본...역사적 가치 인정받아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포은선생문집이 지난 22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포은선생문집은 지난 2021년 용인시박물관이 입수한 3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이다. 용인특례시는 지정 가치 연구를 거쳐 지난 2월 경기도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포은선생문집은 포은 정몽주의 총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439년 최초 간행된 후 일제강점기까지 14회에 걸쳐 추가 간행됐다.

용인시박물관 소장본은 1607년 영천의 임고서원에서 간행된 영천본으로 희귀한 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간행을 주도한 영천군수 황여일의 발문이 수록돼 간행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1책에는 5편의 서문, 3편의 발문, 수록한 시문의 목록이 수록됐다. 제2책에는 명나라와 일본에 사행을 갔을 당시 지은 시를 포함한 264편의 시문, 제3책에는 포은 선생의 전기(傳記, 전해들은 기록), 영정(影幀,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 연보(年譜, 개인의 연대기), 행장(行狀, 죽

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등이 실려 있다.

시는 포은선생문집을 보존처리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유물을 확보하고 연구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겠다"며 "유물 구입과 기증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박물관은 기존에 모법연화경(妙法蓮華經,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으로,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경전)과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가 크다는 걸 적은 불교경전의 하나)을 포함해 포은선생문집까지 총 3건의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869억원 늘어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월곳~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편성



안양시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8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1조8182억원)보다 869억원(4.8%) 증가한 1조9051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

비 약 470억원(3.1%) 증가한 1조5526억원, 특별회계는 약 399억원(12.8%) 증가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 및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

측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용예산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주요 편성내역은 ▲월곳~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189억원) ▲자율주행 시범사업(27억원) ▲장애인체육센

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12억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2억8000만원) 등이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2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5억원)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5억4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추경예산안은 9월7일부터 9월20일까지 열리는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시흥의 자연에서 즐기는 9월의 생태축제

9일, 시흥시 거북섬 해양축제, 22일, 시흥갯골축제 개최

시흥시가 오는 9월, 특색있는 생태축제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문을 연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와 '시흥갯골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9월 9일과 10일에는 시화MTV 거북섬과 시흥웨이브파크 일대에서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가 펼쳐진다.

카약,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체험', 바다 관련 소품을 만들어 해양 문화를 경험하는 '거북이 마켓', 시화호가 그려진 대형 퍼즐을 맞추는 '거북섬 퍼즐' 등 해양과 관련된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경인방송에서 주관하는 '거북섬 밤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해 축제의 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8월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시화호 투어'는 요트를 타고 시화호를 감상하는 체험이다. 거북섬을 걸어서 탐험하는 '거북섬 한바퀴', 거북섬 해양단지를 돌아보는 '거북섬 순환 시티투어' 등과 함께 시화호, 거북섬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로 나아가고자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스 16개소를 운영하고, 청년 협업마를 입주 기업과 관내 지역 기관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는 정왕역과 오이도역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6개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거북섬 시티투어 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민간 주차장 등 3,300여 면의 주차 공간도 확보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무엇보다도 내년은 시화호가 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시화호의 해'로,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가 시화호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시흥갯골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 예술놀이터'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시흥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린다.

대표 프로그램인 '갯골패밀리런'을 포함해 '갯골습지 놀이터', '어쿠스틱 음악제', '소금창고 인형 극장', '갯골 전국 미술대회' 등 총 20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가을 음악회'와 갯골 서식 조류를 탐구하는 '버드 놀이터', 7080세대를 위한 추억의 '통기타 공연', 갯골 풍경을 그려보는 '갯골 사생회' 등 6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올해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축제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자동차, 리플릿,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청과 시흥시청역, 오이도역, 신천역 4개소에서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모든 먹거리 구역에 다화용기 사용을 도입한다. 축제장 내 '지구를 지키는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 시 음료 할인도 지원한다.

또, 관내 소상공인,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마켓을 16개소에 배치하고, 시흥산업진흥원,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우수한 시흥시 제품과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시흥메이드' 20개소, '농부장터·연가공 식품' 18개소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시흥 갯골축제학교'를 통해 배출한 15명의 청년 자원활동가가 축제 현장에서 프로그램 안내와 촬영 등을 직접 수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흥갯골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이번 축제들이 시민에게는 쉼과 여유를, 상권에는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전남도 남도장터, 추석 명절 맞이 대대적 할인 기획전

청정 남도에서 길러낸 바른 먹거리... 최대 50% 할인

(재)남도장터가 신선한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남도장터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추석 명절 판촉전에 들어간다.

이번 기획전은 '한가위, 남도장터는 한수 위 남다른 추석 특별혜택을 쏘다'를 주제로 행사 기간 약 470여 개의 도내 지역 농·수·축산물을 할인한다.

남도장터에 입점된 품목은 기본 10% 할인이 적용되며, 추석 기획전과 대한민국수산물대전, 시군 특별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량 주문에 대한 이용 편의도 제공된다. 단일상품 20개 이상 대량 주문하는 경우 정보무늬(QR코드)로 주문 절차를 진행하고, 담당자가 별도 관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남도장터 쇼핑몰 외에도 카카오톡, 11번가, 옥션, G마켓, 우체국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33개 채널과 동시에

행대 전 국민 대상 도내 농·수·축산물 판매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서울타워 및 인천공항, 공영방송,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남도장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남도장터를 국내외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남도장터에서 추석선물 구입하면 선물을 구매 부담은 줄이고, 받는 이도 행복한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것"이라며 "전남 농특산물 공공형 종합유통 플랫폼 사업 앞으로 도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홍보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남도장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최경식 남원시장, "지방소멸극복" 위해 일본 가와바촌 방문

5,000세대 규모 은퇴자 마을 조성 위해 지방소멸극복 성공사례 시찰



최경식 남원시장이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지방소멸 극복사례 모델인 군마현 가와바촌을 방문했다.

가와바 마을은 연 매출 27억엔, 고용창출 150명, 방문객 240만명 성과를 달성하여 국토교통성 마을기업 전국 1위 모델로 선정된 곳이다.

시는 2023년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에 선정, 구)가축유전자원센터와 연계하여 은퇴자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에 방문단은 전원플라자 가와바(주), 유키호타카(주), 가와바 우드빌리지(주), 세타가야 가와바 고향공사를 방문,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청

취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우리 보다 앞서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남원시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데 실마리를 찾아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라북도도와 함께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급격한 증가 및 역이민 수요 증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국내 투자계획 등과 연계, 구)가축유전자원센터 유후부지에 재의동보 2000세대, 은퇴자 3000세대 등 대규모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고위공직자 맞춤형 4대 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

5,000세대 규모 은퇴자 마을 조성 위해 지방소멸극복 성공사례 시찰

전남 함평군은 29일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난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공직자 맞춤형 교육은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개정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일반 직원과 구분돼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했다.

군은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남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희롱 등 폭력 발생 시 부서장의 역할, 사건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지원체계, 성인지 감수성 이해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강의와 진행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장 내 성평등의식 확산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4대 폭력 예방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진/기자



'잡초와의 전쟁' 나주시, 빗가람혁신도시 경관 개선 구슬땀

9월 말까지 근린공원, 녹지, 인도, 미개발사유지 등 잡초·덩굴류 집중 제거



전라남도 나주시가 빗가람 혁신도시 경관 개선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잡초 제거에 팔을 걷었다. 나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잡초 집

중 제거' 기간을 정해 빗가람동 근린공원 32곳, 완충·연결녹지 103곳과 인도, 주택 밀집지역 미개발부지에 대한 예초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년과 다른 이상기온으로 잡초, 덩굴류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 도시 경관을 해치고 수목 생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우거진 덩굴은 간혹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보행자 또한 인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미개발사유지의 경우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잦고 모기 등 해충 서식지가 되고 있어 이번 집중기간 잡초를 말끔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 차량 주의, 청소구역 이탈, 단독행위 금지, 도구 사용 시 주변 확인 등을 주지하도록 했다.

작업 중에는 돌, 나뭇가지 등이 튀어

다칠 수 있으므로 작업반경 15m이내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경관 개선과 수목 보호를 위한 잡초 제거 작업에 있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권역별 책임 담당제를 통한 잡초제거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청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빗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5급 사무관을 소장으로 하는 1소 2팀 8명으로 구성된 '빗가람시설관리사업소'를 지난 20일 개청했다.

김영안/기자

순천시, '유(학생)퀴즈 덩동댕' 외국인 청년을 찾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의 외국인 청년 대상 퀴즈 대회 참가자 모집

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청년 대상 퀴즈대회인 '유(학생)퀴즈 덩동댕'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퀴즈대회는 다음 달 16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진행할 2023년 순천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 청년에 대한 문제를 푸는 퀴즈대회이다.

2023년 7월 기준 순천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2,719명으로, 그중 18세~45세 외국인은 2,048명이며, 이번 퀴즈대회는 유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 청년들이 참여해 한국과 순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방법은 지난 5월 1일에 오픈한 순천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의 새소식에 게시된 네이버폼 또는 청년정책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회를 거쳐 1등에게는 30만 원 상당, 2등에게는 20만 원 상당, 3등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회는 한국어, 한국어, 한국예절, 문화, 순천청년 등 한국과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도전골드벨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퀴즈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기자



이 외에도 순천시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18~45세 청년인 부모와 자녀가 포함된 가족 대상 세대연결 프로그램 '우리는 모두 청년' 참여가족과 플라멩코 청년 운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타국살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외국인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상호 이해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와 함께 외국인 청년들이 순천청년과의 유대 관계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완도군, 전북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힘쓴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 전북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 등

완도군은 경기 침체와 전북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와 전북 소비 운동 등을 추진한다.

먼저 완도군청, 완도군의회 및 각 기관·사회단체와 향우회 등이 참여하는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릴레이 챌린지'를 전개한다.

챌린지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시작으로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이 이어받아 완도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강조하며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군민 동참 119 프로젝트'는 '1'가구당 '1'kg을 '9'회 구입하도록 독려하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어가에 힘을 실어주고 군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다른 크기의

전북에 비해 적체되어 있는 전북 11미~13미를 판매하기 위해 '전북 생산 어가 돕기 판촉전'을 추진한다.

판촉전은 군민과 향우, 완도군 주요 자매결연 도시 등을 대상으로 전북 1kg을 29,000원, 2kg을 55,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북 주문은 한국전북육유통협회(인터넷 또는 전화 주문 061-552-0913)로 하면 된다.

또한 군과 유관 단체에서는 전북 판매 행사 및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많은 사람들이 전북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 소비 촉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군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양영울/기자

진도군,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실시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방향 교육

진도군이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자치정책연구소포럼 대표인 강정원 전문강사를 초청, '주민자치의 방향 - 주민자치의 전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의 기본 소양 ▲주민자치회 전

환의 필요성 ▲주민자치 전환 준비 등을 통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자기진작을 도모했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세계 최대 특송사 '페덱스'와 항공물류산업 발전에 힘 모아

페덱스, 경북 수출입기업에 대한 운임 할인 및 항공물류 컨설팅 지원



경북도는 30일 세계 최대 해외 특송사 중 하나인 페덱스코리아(Federal Express Korea)와 경북 항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페덱스코리아 서울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원빈 페덱스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페덱스 익스프레스(FedEx Express)는 전 세계 GDP의 99%를 차지하는 2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항공기는 약 700여 대, 직원 수는 전 세계 28만 명에 달한다.

1988년 영업을 시작한 페덱스코리아는 현재 416대의 운송 차량, 19개의 사무소 및 접수처, 인천국제공항 내 대규모의 물류센터 등을 구비하고 한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특송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북도와 페덱스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임 할인 및 물류 컨설팅 제공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경상북도 물류 인력 양성 정책 수립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소재 기업이 협약을 통한 운

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페덱스의 웹페이지를 통해 도어-투-도어(Door-to-door) 국제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능하다.

도어-투-도어 배송 서비스는 픽업부터 통관, 최종 배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입 초보자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보다 많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페덱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미코(Gumico)에서 열리는 '2023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GADLEX)'에 참가해 도내 수출입 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통관·물류 전략 관련 컨설팅 제공 및 미래 물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생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박원빈 페덱스 대표이사는 "페덱스는 지역 중소기업의 니즈(Needs)와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원활한 배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페덱스의 혁신적 특송

시스템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덱스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에 회원사가 1,000여 개 이상이다. 많은 기업이 이번 협약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물류공항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북이 중심이 되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페덱스와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힘 기울여 페덱스뿐만 아니라 UPS, CJ대한통운, 쿠방 등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과 탄탄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에는 기업·대학·경북도·산하기관·시군 간의 협력 네트워크인 '항공산업 싱크넷'을 발족하고, 11월에는 글로벌 물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물류포럼'을 개최해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글로벌 항공물류 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국내 석학 초청해 공간정보 발전 포럼 열어

디지털 트윈 2개 국가 공모사업 기반으로 미래 시정 혁신 기대 권기창 시장, "공간정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혁신적 제안 반영, 시의 고유한 문화와 콘텐트를 결합한 독자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혀

안동시는 지난 29일, 시청 옹부관 청백실에서 국내 공간정보 분야 최고 석학을 초청해, '안동시 공간정보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 국토사업'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정밀 전자지도 헬리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대표되는 3차원 공간에 안동의 문화유산 콘텐트와 수자원 인프라 등을 구현해 문화시설과 콘텐트를 담은 고정밀 전자지도도 구축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재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시정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국내 최고 전문가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시정 역량을 향상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포럼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사공호상 (전)국토지리정보원장, 김대중 국토연구원 본부장, 이병길 한국측량학회 회장, 김형태 서울대학교 교수, 이도영 안동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전문가 발표에서 사공호상

박사는 '스마트한 안동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전략 및 조직의 역할'을 제시했다. 김대중 박사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목표 설정 및 공간정보 정책의 현 주소에서 안동시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최신 공간정보 기술 및 동향에 따른 공간정보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이병길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2부 토론에서는 좌장 사공호상 박사를 중심으로 김형태 교수, 이도영 교수가 패널로 나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안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굴기(大邱崛起), 여성의 힘으로!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년9월1일 11시, 엑스코 서관(전시 1~2홀) 평등관에서 개최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을 9월 1일 11시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한다.

양성평등주간은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올해는 '대구굴기(大邱崛起)',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회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등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 단체·기업을 시상하고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기부와 봉사 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남성회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수상한다.

이외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진다. 대구광역시장상 표창에는 (주)E.O.S,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사단법인 한국어 성유전자 대구연맹, 신나는 봉사대가 수상하게 되며, 대구광역시의장 표창은 협동조합농부장터,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 한국부인회 대구광역시지부가 각각 수상하게 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국 유일의 여성정책 종합박람회인 '2023 여성 UP엑스포'를 9월 1일, 2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제1전시장 1~2홀)

에서 개최되며, 9개 여성가족분야 정책타마관을 중심으로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 온(溫)가족사랑 대축제, 명사초청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념식 행사는 대구시정뉴스 및 (주)엑스코의 유튜브, 여성UP엑스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상세한 행사 일정은 여성UP엑스포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여성UP엑스포'를 개최해 양성평등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위군을 품은 대구가 미래 50년 번영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대구굴기의 원년을 만들어 가는 담대한 여정에 시민과 함께 여성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사례관리'란 무엇인가?..하반기 영주복지학당 개최

70여 명 참석해 사례관리에 대한 다양한 실천과 경험 공유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일 148아트스퀘어 다목적실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종사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영주복지학당II'를 개최했다.

하반기 복지학당은 민관의 사례관리 담당자와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이 사례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실천 기술을 습득해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상반기 복지학당은 지난 4월 '돌봄철학과 실천의 힘'이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복지학당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이해'(서규동 경산복지재단 상임이사), △'사례관리자의 성찰과 성장'(박경연 섬교육복지연구소장) 특강

으로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관이 함께하는 사례관리 교육이 정말 유익했다"며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소통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민간기관 실무자들이 교육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햅사과 출하 앞서 공판장 개장 준비 한창



9월 4일부터 사과경매 시작,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 본격

청송군은 지역 최대 농특산물인 '햅사과'의 본격적인 출하에 앞서 공판장 개장 현장 사전점검에 나섰다.

햅사과유통센터는 오는 9월 4일 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 개장으로 햅사과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판장 시설 확충공사로 인해 작년보다 개장이 다소 늦어졌으며, 현재 개장에 앞서 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선별설비 시험가동을 통해 햅사과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이 한창이다.

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은 2019년 11월 개장 이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장 첫해 사과 출하물량 1,905톤을 시작으로 개장 4년 만에 8,339톤으로 취급물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기준 청송군 전체 사과재배 농가 4,000여 농가 중 1,300여 농가가 공판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을 만생종 사과부터는 꼭지 무절단 사과를 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을 통해 출하할 수 있다. 농가 인건비 절감과 과실 신선도 향상을 위해 청송군에서는 올해부터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사업"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햅사과의 본격적인 출하에 맞추어 시설 증축공사를 마무리해 농가들의 공판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햅사과 유통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벽산 김도현 선생 도해순국 109주기' 추모

오도창 영양군수 초헌관 집례

벽산 김도현선생숭모회는 8월 29일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도해단에서 벽산 김도현 선생의 도해순국 109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영덕군 벽산 김도현선생숭모회의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 오도창 영양군수, 이병철 광복회 경북지회장, 이춘봉 전물군경유족회영양지회장, 벽산 선생 유족대표와 후손, 지역유림 등 영양군에서는 3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승

모 제향행사와 2부 의식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승모제향 행사에서 초헌관은 오도창 영양군수, 아헌관은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벽산 선생의 김념김씨 대종회 고문 김광수님이 맡았으며, 이어지는 의식 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약사보고, 승모회장 인사 및 내빈 승모사, 추모시 낭독 순으로 경건하게 거행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벽산 김도현 선생 추모행사가 작년부터 재개되어 기쁘고, 우리군의 빛나는 항일지사 벽산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행사에 참석해주신 관내·외 내빈 및 벽산 선생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영양군과 영덕군이 선생의 도해순국 정신을 기리며 뜻깊게 소통하고 하나로 화합되는 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탄력'

구미국가4단지 내 490억 원 투입, 2027년 클러스터 준공 목표

경북도는 탄소중립 선제 대응,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4년간 490억 원이 투입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경북도와 구미시, 김영식 국회의원의실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과 전방위적 노력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1) 및 녹색연관산업2)의 집적 및 융복합축진을 지원하기 위해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 대상으로 경북 구미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성계획 수립 4억 원)됐다.

경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 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2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반도체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실리콘을 추출·정제해 이차전지 음극재

재 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구미국가4단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는 ①(기반)전국 최다, 내륙 최대'국가산업단지 5개 보유 ②(산업) SK실트론·매그나칩반도체·KEC 등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123개 기업 보유 ③(물류)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20분 거리에 있어 높은 수출 물류 경쟁력 확보 ④(인력)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보유 및 인력양성 인프라(금융공대, 구미전자공과) 구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추진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구미 반도체'와 '포항 이차전지'가 지정돼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반도체 생산→재활용→이차전지 소재 사용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음극재



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차별화,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실리콘/인조흑연 복합 음극재 개발을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용 음극재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정 성과를 단기간 내 도출해 낼 것이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캠페인 펼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주세요"

봉화군은 29일 봉화읍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봉화군청 가족청소년과를 비롯해 봉화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유관기관에서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가요주점·편의점·다방·일반음식점 등을 방문해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미표시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또한 업주들에게 술, 담배 판매 시 사

전에 신분증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포했다.

권병희 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협업체 유해환경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다."며 "봉화군도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청소년으로부터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민·관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가을의 시작 알리는 '산소카페 청송정원'

형형색색 백일홍 가득한 청송정원 개장

윤경희 청송군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가을철 꽃구경하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9월 1일 공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주민들과 17개 지역 단체의 참여를 통해 4만2000여 평 규모의 청송정원에 백일홍 단지를 조성했다. 올해 백일홍 단지는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추석 연휴를 거쳐 10월 초순까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일홍이 어우러지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마음 넉넉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입장가능 시간 오후 6시) 특히 올해는 부족하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방문객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단지인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지난해 가을 9~10월 2개월 동안 15만 명이 방문하면서 청송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말마다 음악회, 버스킹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등이 이곳에서 예정되어 있어 방문객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과 지역단체가 협심한 결과 이런 대규모 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펼쳐보자 책도! 꿈도!독서의 달행사 풍성

도서관별 지역 특성 살린 개성 있는 책 문화행사 펼쳐져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9월 한 달간 작가 강연, 레이저 공연, 드로잉 매직쇼, 버블 마술쇼, 책 놀이 체험 등 도서관별 지역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책 문화행사를 펼친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지역작가 특강인 추필숙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수리수리 판타지 드림 쇼 공연이 진행된다.

체험활동으로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접시 꾸미기(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피크닉 소품을 활용한 9월엔 책, 북크닉 행사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관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도서관구미지회가 선정한 어린이 청소년 추천 도서 전시 및 '독서의 달은 이 책과 함께'라는 주제로 책 추천(북큐레이션)이 펼쳐진다.

인동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작가 특강인 유실화 작가와의 만남 △연극 놀이로 떠나는 그림책 세상(해와 달이 된 오누이) △천아트&캘리(내 손으로 꾸미는 핸드폰가방 만들기 체험) △한국을 담은 그림책 전시가 펼쳐진다.

상모정수도서관에서는 △서점 작가

와 함께 읽는 '호랑뽕집' 이야기 △수리수리 판타지 드림 쇼 공연 △내 얼굴 피자 만들기 △책 할머니와 함께하는 재미 풍 풍 책 놀이 △그림책 원화전 '으렁이 발소' △지역작가 도서전 '구미 작가들 소개합니다'가 진행된다.

양포도서관에서는 △이석원 작가 특강인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세상에서 하나뿐인 유리컵 만들기 △점토를 이용한 달이네 추석맞이 체험활동 △'아빠도 처음이란다' 책 추천(북큐레이션) △그림책 원화전 '공공공'이 펼쳐진다.

봉곡도서관은 드로잉 매직쇼, 이모티콘 그리기, 원화전이 진행되고, 선산도서관에서는 버블 마술쇼, 어린이 요리 체험, 독서퀴즈와 북큐레이션이 진행된다. 이외에 '과년도 잡지 나눔'과 반납 기일을 넘긴 대출자의 도서 정리를 풀어주는 '연체자 구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작가초청 강연과 공연, 체험강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도서관별 상세 일정은 시립도서관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막바지 준비 총력

최종준비상황보고회 열고 만반의 대비 9월9일 안동시민 대화합·단결의 장 열린다

안동시가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인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해「청정스포츠 도시 안동」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최종준비상황보고회를 열었다. 권기창 시장 주재로 종합상황실 등 1실 10개 반별 담당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기본계획 및 종합상황 보고, 10개 지원반별 보고, 질

의응답 순으로 부서 간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노점상 단속, 성화봉송 계획, 쓰레기 수거, 주차장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대책, 식당 위생 지도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15만 안동시민이 체육으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라며, "개회부터 폐회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는 9월 9일 10시 안동시민운동장에서 '함께하는 시민체전! 하나되는 안동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제63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안동시민 등 15,000여 명이 참석해 읍

면동 10개 종목, 직장부 2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한다. 성화 채화장소는 읍부공원이다.

한편, 안동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최고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탄저병·갈색무늬병 방제 철저 당부

사과 탄저병, 갈색무늬병 방제 철저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영덕군 관내 사과원에서 병해충 예찰을 통해 탄저병, 갈색무늬병 등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지역의 기후 조건은 병해충이 출몰하기 쉬운 환경으로, 탄저병과 갈색무늬병은 하루 평균기온이 23~27°C의 고온이고 지속된 강우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확산한다.

사과 탄저병은 주로 과실이 익기 시

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열매에 흑갈색 반점이 형성되고 과실을 부패시켜 심각한 상품성 저하와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사과 탄저병 방제를 위해선 병든 과실을 조기에 따내 병원균이 빗물에 흘러내려 다른 과실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등록 약제를 안전사용지침에 따라 집중 방제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잦은 강우로 인해 사과원에 배수가 불량하면 사과 잎의 조기낙엽을

일으키는 갈색무늬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박병대 소장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병해충 정밀 예찰과 초기 방제를 시행해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독서의 달 행사

상모정수도서관에서 펼쳐보자! 책도, 꿈도!!

신청하러 가기

자세히 보기

문의하기

480-4732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비고
강연	작가와의 만남 - 그림책작가 사현 -	9.23(토) 13시	2강의실	- 홈페이지 사전 신청 - 9.4(월) 9시부터 접수
공연	수리수리 판타지 드림쇼	9.16(토) 11시	강당	
체험	내 얼굴 피자 만들기	9.9(토) 10시, 13시	지하층계실	- 홈페이지 사전 신청 - 8.28(월) 9시부터 접수
	책 할머니와 함께하는 재미 풍 풍 책 놀이	9.16(토) 14시, 15시	어린이자료실	
전시	그림책 원화 전시 '으렁이 발소'	9.1. - 9.30.	로비	자유 관람
이벤트	과년도 잡지 기부	9.1. - 소년사과지	자료실	대출회원 / 1인 3권
	연체자 구제	9.1. - 9.30.	자료실	연체도서 반납시 대출장지 해지

구미시립상모정수도서관

부산시,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중심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8.31.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고, 위기단계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

부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의 위기단계 2단계 조치로 일상적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하고 효과적인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변이 감시를 위해 감시기관(부산시 33곳)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下水)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그간의 지원정책을 조정하고 의료계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진단·검사는 유료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단 먹는 치료제 처방권과 응급실·중환자실 자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치료 연계를 위해 검사비 지원을 유지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찰·검사·자율치료하는 외래 진료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되며, 자율치료의료상담센터·행정안내센터 등 재택치료 지원 체계도 종료한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유지와 지원을 지속한다.

병원과 취약시설의 고령자·중증질환자 보호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하며 접촉력과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은 허용한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지속 운영한다. 다만, 16개 구·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요일은 운영을 중단한다.

병상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지정병상(6개 의료기관 28병상)과 일반 병상(자율입원병원 52개 의료기관 983병상)을 중심으로 지속 운영하며, 격리입원치료비는 지급을 종료한다. 단, 중증환자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일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병상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지정병상(6개 의료기관 28병상)과 일반 병상(자율입원병원 52개 의료기관 983병상)을 중심으로 지속 운영하며, 격리입원치료비는 지급을 종료한다. 단, 중증환자에 한해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일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유행 중인 변이를 타겟으로 올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10월부터 접종할 계획이다.

위기경보 '경계'가 유지됨에 따라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시와 구·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당분간 유지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감염취약시설 피해

2023. 8. 31.	2023. 8. 23.																					
1) 방역 조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2)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진단을 위한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table border="1"> <tr><th>분야</th><th>내용</th><th>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th></tr> <tr><td>마스크</td><td>· 일부 유지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 의료기관) ·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td><td>· 유지 · 방역상황 등-리량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여부 권고 전환</td></tr> <tr><td>선제검사</td><td>· 감염취약시설 중시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의료기관, 자가격리 등 필요시 PCR 또는 RAT)</td><td>·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한일 유지</td></tr> <tr><td>감염취약 시설 보호</td><td>· 집중력에 따른 조정부 자율-외박 허용 · 집중력 대면연회시 취사제공 (연속수용) · 대면연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td><td>· 집중력에 따른 조정부 자율-외박 허용 · 면회 휴지 유지 (연속수용) · 대면연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td></tr> </table>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마스크	· 일부 유지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 의료기관) ·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유지 · 방역상황 등-리량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여부 권고 전환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중시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의료기관, 자가격리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한일 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집중력에 따른 조정부 자율-외박 허용 · 집중력 대면연회시 취사제공 (연속수용) · 대면연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집중력에 따른 조정부 자율-외박 허용 · 면회 휴지 유지 (연속수용) · 대면연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table border="1"> <tr><th>분야</th><th>내용</th><th>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th></tr> <tr><td>진단·검사</td><td>· 선별진료소-PCR · 의료기관 PCR/RAT</td><td>·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일일 1회 운영)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일반PCR, 일반RAT, 일반PCR) (자율입원·격리자에 한해 격리)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일반PCR, 일반RAT) 등 진료 지원</td></tr> <tr><td>외래/재택 병상</td><td>· 원소통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운영</td><td>· 종료 · 유지</td></tr> </table>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PCR · 의료기관 PCR/RAT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일일 1회 운영)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일반PCR, 일반RAT, 일반PCR) (자율입원·격리자에 한해 격리)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일반PCR, 일반RAT) 등 진료 지원	외래/재택 병상	· 원소통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운영	· 종료 · 유지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마스크	· 일부 유지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 의료기관) · 의료기관 입원환자, 방문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 유지 · 방역상황 등-리량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여부 권고 전환																				
선제검사	· 감염취약시설 중시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의료기관, 자가격리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한일 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 집중력에 따른 조정부 자율-외박 허용 · 집중력 대면연회시 취사제공 (연속수용) · 대면연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 집중력에 따른 조정부 자율-외박 허용 · 면회 휴지 유지 (연속수용) · 대면연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PCR · 의료기관 PCR/RAT	·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 (일일 1회 운영) ·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일반PCR, 일반RAT, 일반PCR) (자율입원·격리자에 한해 격리) ·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일반PCR, 일반RAT) 등 진료 지원																				
외래/재택 병상	· 원소통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운영	· 종료 · 유지																				
3)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 격리, 생활 지원 등 고위험군 지원에 유지)	4) 감시 체계 (대중감시 체계 및 다중 감시체계)																					
<table border="1"> <tr><th>분야</th><th>내용</th><th>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th></tr> <tr><td>치료제</td><td>· 일부 처방 구매 무상공급</td><td>· 유지</td></tr> <tr><td>격리비용</td><td>· 누구나 무료제공</td><td>· 유지</td></tr> <tr><td>치료비</td><td>· 전체 입원환자 지원</td><td>·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td></tr> <tr><td>생활지원/유급휴가비</td><td>·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중시자수 30인 미만 기업</td><td>· 종료</td></tr> </table>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치료제	· 일부 처방 구매 무상공급	· 유지	격리비용	· 누구나 무료제공	· 유지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중시자수 30인 미만 기업	· 종료	<table border="1"> <tr><th>분야</th><th>내용</th><th>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th></tr> <tr><td>감시 체계</td><td>· 선제검사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운영</td><td>· 표준감시(일반PCR) 운영 지속 (일일 1회 운영) · 주간 단위 감시기관내 발생상황 및 변이 모니터링 운영 정상 종료</td></tr> </table>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감시 체계	· 선제검사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운영	· 표준감시(일반PCR) 운영 지속 (일일 1회 운영) · 주간 단위 감시기관내 발생상황 및 변이 모니터링 운영 정상 종료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치료제	· 일부 처방 구매 무상공급	· 유지																				
격리비용	· 누구나 무료제공	· 유지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중시자수 30인 미만 기업	· 종료																				
분야	내용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감시 체계	· 선제검사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운영	· 표준감시(일반PCR) 운영 지속 (일일 1회 운영) · 주간 단위 감시기관내 발생상황 및 변이 모니터링 운영 정상 종료																				

를 최소화하고자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 지원팀(5팀 36명)을 확대하고, 집단감염 발생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마스크 쓰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년여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계획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도봉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식품안전 활동 역량 '강화'

도봉구 내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위촉·활동 중인 감시원 82명 대상

도봉구가 8월 31일 구청 자운봉홀에서 도봉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도봉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총 82명이 위촉·활동 중이다. 감시원은 음식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서 위생관리 및 홍보, 불량식품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분야 전문가가 현장 사례와 주요 위반사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식품안전관리 정

책방향과 주요시책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위해식품 식별 요령 ▲식중독 예방 관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 제도 등이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 지도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중구,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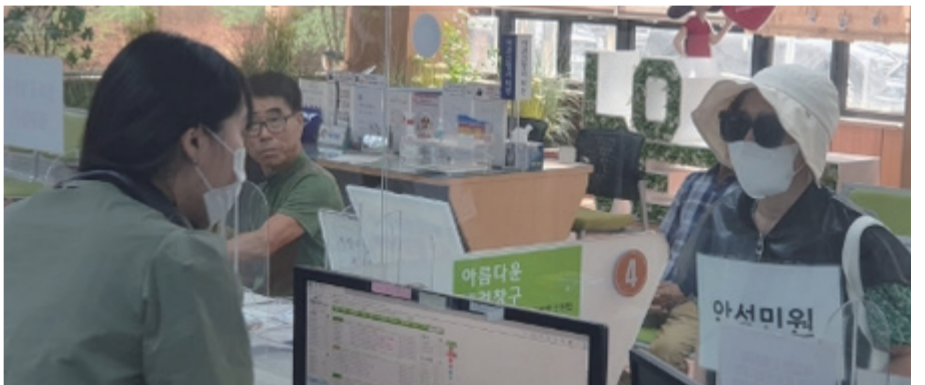
울산 중구가 29일 오전 10시 중구청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 설득 및 상담 내용 촬영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민원인 제압 및 호송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민원 응대 공무원들은 상황별 대응 요령을 점검하고, 360도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목격이 형태의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웨어러블 캠)와 경찰 신고 비상벨 정상 작동 상태 등을 확인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의 적극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진/기자



성북구, 코로나19 4급 전환 대비 대응 태세 강화, 질병관리청장 직접 방문하여 확인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8월 31일 하향 전환



서울 성북구 신상철 부구청장이 지역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8월 29일(화) 성북구보건소와 성북참요양병원 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와 감염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의 제4급 전환 시기에 맞추어 고위험군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방역 대응체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성북구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을 앞두고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안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고위험군 보호 및 집중관리를 위해 합동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전담대응팀은 감염 취약시설·서울시·방역당국과

협조하여 확진자 발생 현황정보를 공유,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수행한다.

이날,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성북구보건소장, 전담대응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한 후, 성북참요양병원 의료진과의 만남을 통해 고위험군 감염예방을 위한 지원사항 등 현장의 어려움도 확인했다.

강성원/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 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강원도 탄광,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탄광에서 추는 춤’공연

태백 출신 안무가 홍지우, 9월 2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무용극 선보여..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가?’ 태백 출신 안무가 홍지우는 마지막 남은 탄광의 폐광 소식을 접한 후, 지역의 주요 산업인 탄광을 예술가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은 지난해 선정된 (재)강원문화재단의 ‘강원작품개발지원-강원다온’ 사업을 통해 2년의 작품개발 기간을 거쳐 지역적 소재가 접목된 무용극으로 완성됐다.

이번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해부터 태백의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접 수소문하여 인터뷰했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 연극, 영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많은 회의를 통해 광산이라는 공간을 무대에 이질감 없이 가져오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를 진행했다. 또한 음악에 카운트를 매겨 동작을 하거나 순서를 익히는 기존 무용수들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탄광의 광음, 광부들의 움직임에 맞추어 군무를 창작하고 표현하기 위해 수없이 연습을 반복하여 ‘탄광에서 추

는 춤’이라는 작품을 완성했다. 안무가 홍지우는 “탄광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광부의 모습과 코로나19로 몇 년간 마스크에 갇혀 생활한 우리의 삶을 연결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통해 마스크에 의한 삶, 이후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으며, 탄광의 역사를 함께한 태백시민 분들에게 이 공연을 선물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탄광에서 추는 춤’ 공연은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태백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뮤지컬 ‘빨래’의 무대를 디자인한 여신동 감독을 포함해 2013년 세계 스트리트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김학수(G-haksu),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금혼령 등 다수의 드라마 예능의 작, 편곡가로 참여한 조은영 작곡가 등의 참여로 한층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태백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시장, 아산시기독교연합 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9일 아산시 복합스포츠크센터에서 개최된 아산시기독교연합회 2023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 개최식에는 박경귀 시장을 비롯해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아산시기독교연합회 목사·장로 부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배구, 족구, 승부차기, 이어달리기, 훌라후프 등 다양한 종목에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이날 개최식에서 “오늘 행사가 열리고 있는 복합스포츠크센터와 인근 종합운동장 일원은 불과 1년 전까지

만 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신속검사소로 운영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려움을 지나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해 주신 기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웃고 뛰고 즐기시면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기독교연합회는 아산시에 있는 360개 교회 5만여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김원호/기자



충남쌀 ‘청풍명월 골드’ 11년 연속 1위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서 수상 영예

충남도는 3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지역특산물(쌀) 부문에서 ‘청풍명월 골드’ 11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풍명월 골드는 충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충남 쌀의 고급화와 제값 받기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 최초로 출시됐다.

도는 브랜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곡인 ‘삼광’ 재배를 위한 사업 개발과 지원을, 농협 충남본부에는 상표 관리와 판매를, 도 농업기술원은 표준재배 지침(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수상도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삼광’ 단일품종을 원료곡으로 단일작형량 6.0% 이하, 완전립 비율 94% 이상의 철저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쌀을 제품으로 출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아 이뤄졌다. 앞으로 도는 청풍명월 골드를 발판 삼아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삼광 품종의 시군 대표 쌀 브랜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청풍명월 골드가 11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농업인과 참여 기관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며 “소비자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한국리서치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폐광대비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 돌입



태백시는 오는 2024년 6월 예정된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를 위해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노동부의 “상생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 사업에 태백시가 선정되어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모델 개발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높아진 자립 욕구를 반영하여 기획됐다. 이를 위해 시가 지난 4년간 검토해 온 “산림·목재 클러스터” 사업을 기반

으로 하며, 이 클러스터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선정되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태백시의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모델 개발 사업에는 태백시, 강원연구원, 그리고 (주)녹색탄소연구소가 협력한다. 첫 회의는 오는 8월 31일에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는 태백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원 12명이 참석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노동자, 사업자, 시민, 정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지역 및 주민 중심의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총 4~5회의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말에는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모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충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바닷고기·쏘가리 전시한다

괴산고추축제 기간 음식점 할인 행사도 열어

충북내수면산업연구소는 (가칭)민물고기아쿠아리움 개관 전 사전 홍보와 전시공간 확대를 위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기존 연구시설을 바닷고기 및 쏘가리 특화전시관으로 탈바꿈하여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새로운 전시관에는 바닷고기 6천마리와 쏘가리 5천마리가 전시되며, 전시어종으로는 바닷고기는 민물에서 양식 가능한 고부가가치 어류인 점농어, 송어, 감성돔, 황복이 있으며, 쏘가리는 전국 최초 양식 성공한 쏘가리를 포함해 황쏘가리, 백쏘가리가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는 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괴산군 고추축제를 맞아 단지 내 입점된 음식점에서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괴산고추축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참여업체

는 도랑, 돌다리, 산막이횃집 총 3개 업체이다. 홍보팸플릿을 소지하면 식사에 한하여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내의 기존연구시설에서 특화된 전시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괴산군 고추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 방문하여 민물에서 사육하는 바닷고기와 충북의 대표 어종인 쏘가리(쏘가리, 황쏘가리, 백쏘가리)를 관람하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내수면산업연구소는 (가칭)민물고기아쿠아리움을 2024년 5월 개관 이후 단지 활성화를 물론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9월부터 부부 중 1명 거주기간 채우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일 기준 산모 거주기간 1년에서 부부 중 한명으로 지원 범위 확대

천안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출산일 기준 산모의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거주 기간이 충족한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소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 지급 대상은 아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에 출생등록이 유지돼 있는 경우다. 소급 지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가능하다.

시는 내년부터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산후조리 비용 지원의 확대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추석 명절 맞이, 9월 원주사랑상품권 150억 원 발행

연말까지 1인 월 구매한도 상향 (기존)30만 원 → (변경)50만 원

원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원주사랑상품권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9월 원주사랑상품권은 오는 1일 오전 10시에 발행되며, 9월부터 연말까지 1

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원주사랑상품권은 총 626억 원이 판매됐으며, 그중 약 90%에 해당하는 567억 원이 1개월 이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원주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되는 고물가로 시민이 겪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가 원주시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충북도, '옥천제2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심의 통과

투자유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대

'옥천 제2농공단지'가 지난 29일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하며 본래도에 오를 전망이다.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 기존 옥천농공단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옥천 제2농공단지는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제한 면적인 100만㎡의 잔여 면적을 활용하여 옥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78,326㎡ 규모의 산업단지 12개 업체(112,500㎡)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로 옥천군에서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농공단지계획 승인(9월), 토지보상(10월)을 추진하여 2025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충청북도는 청주 등 중부권에 편중된 투자유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옥천군 등 7개 시,군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기반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옥천 제2농공단지의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분양 가능 면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

정 제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상향 승인하고, 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승인 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충북도 정진자 산단관리과장은 "옥천 제2농공단지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기반조성 협약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 및 투자유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힘센충남 1년 만에 '국비 10조 시대' 눈앞

내년 정부예산 9조 8243억 확보...올 최종 확보액보다 7654억 많아

민선8기 힘센충남이 출범 1년여 만에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 미래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추진 방안을 놓고,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땀다.

도는 정부의 긴급재정에도 올해 최종 확보한 국비보다 7600억 원 이상 더 거두는 성과를 올렸으며, 민선8기 3년차 도정 성과 본격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한 만큼,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형식 도 정부부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9조 8243억 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2023년 정부예산안 8조 6553억 원보다 1조 1690억 원(13.5%)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9조 589억 원에 비해서는 7654억 원(8.4%) 많은 규모다.

전 부지사는 "도 지휘부와 각 실국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고 목표치(10조 원)에 근접하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이번에는 특히 22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과 함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미래 국방 연구 사업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도는 먼저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위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관련 사업 정부예산을 중점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은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건립 △바이오메스 비건레더 개발-클러스터 △탄소중립 바이오기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서산공항 건설 등이다.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은 3군본부가 인정하고, 국방대 등 군 관련 기관이 집적한 논산에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설계비 5억 원을 반영시켰다.

도는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을 건립하면 국방국가산업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국방 미래 첨단 연구 시너지 효과와 과학 기술 강군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하면, 충남의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량 1017억 원이 반영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안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신산업 육성, 농어업 미래 성장 지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반영 국비는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 원 △지방관리 무역향 시설 사용자 지방 이양 140억 원 등이다.

인공섬은 서해안 해양관광-신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해양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관광 미래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관리 무역향 시설 사용료는 2021년 지방관리 항만 사무 이양에 따라 내년부터 항만 사용료까지 이양받는 것으로, 지방항만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02억 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등을 반영, 해양-신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서비스, 균등한 보육 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체계 구축 및 복지 혜택 증진을 목표로 정부예산을 확보해왔다.

이 결과 △소방 지휘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20억 원 △충남 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 15억 원 등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소방 지휘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방 재난 현장의 대형-복합화로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양에 건립 중인 충남소방종합시설 내에 상시 훈련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충남 지역 암센터 장비비 지원은 암 진료 및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해 충남지역암센터(단국대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 589억 원 △TBN 교통방송국 건립 87억 원 등을 반영, 도민 안전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역사문화관광 진흥,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확보 예산으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154억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20억 원 등이 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은 2027년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에서 진행되는 축구와 테니스, 배구, 수구, 비치발리볼 등 5개 종목 경기장과 훈련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은 도내 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서부내륙권과 주변 지역의 관광 연계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근/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개 의료분야 전문기업과 원주 공장 신설 투자협약 체결

(주)오툼, 휴대용 엑스레이 / (주)현대메디텍,, 필러 공장신설 ... 139억 원 투자, 48명 신규 고용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8월 31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휴대용 인체진단 엑스레이 제조기업인 (주)오툼(대표 오준호)과, 의료용 기기(필러 등) 제조기업인 (주)현대메디텍(대표 송미희)과 13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투자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오준호 (주)오툼 대표이사, 송미희 (주)현대메디텍 대표이사, 박길선, 김기홍 도의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다.

(주)오툼은 원주 반계일반산업단지 내 3,920㎡(1,186평) 부지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포터블 X-ray 제조 공장 및 모바일 CT 신규 생산 시설을 건립하고, 신규 인력 25명도 채용할 계획이다.

21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특구로 선정되기도 한 오툼은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엑스레이 장비인 마인(MINE)을 개발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인 O-View AI도 자체 개발하여 식약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제조 허가도 받았다. 또한, 휴대용 엑스레이 분야에서 국



내 최초로 하드웨어 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주)현대메디텍은 의료기기인 봉합사, 필러, 자동약물주입기 및 화장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 시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주 기업도시의 제1공장과 인접한 부

지 9,877㎡(2,988평)에 2026년까지 95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채용(23명)도 늘릴 계획이다.

96년 처음 의료미용 사업을 시작으로 15년 이노비즈 인증 획득, 21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2년 3백만불 수출의 탑 달성, 23년 글로벌 중소기업 1,000 선정 등 지속적인 성

장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국제적인 미용성형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관련 제품의 국내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GMP 인증 공장도 신설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 사업추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체들은 제조시설 및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 노력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원주의 주력 산업이기도한 의료기기 분야가 한 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원주가 의료산업 분야의 최적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가까운 접근성, 편리한 교통인프라 등의 매력을 가진 기업하기 최적의 도시임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등원/기자

어메니티장흥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경북교육청,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방안 발표

따뜻한 경북교육, 상호 존중을 통한 교실 회복

경북교육청은 30일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다짐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다짐식'(2023. 9. 15.)을 열어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방안은 △민원대응팀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이전 △교원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에서 민원대응팀을 운영할 때 교육적 상담과 특이 민원을 구분해 처리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적 기능은 살리고 약성 민원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매뉴얼 등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현재 경북교육청(안동)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구미)로 이전하면서 교원업무 전담장학

사를 배치해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교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원보호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2024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모든 학교가 여건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전 학교에 녹음 기능 부착 전화를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에는 22개 교육지원청에 조직되어 있는 '교원보호 긴급 지원단'(299명, '23. 8. 14. 기준)은 학교 요청이 있을 시 사안에 따라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에 나선다.

특히 침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경우 이에 따른 공간 확보와 학교지원센터 인력 확충으로 분리 학생 관리 방안을 수립해 피해 교원에게 그 역할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최소화하

위해 '긴급 지원단'은 법률 상담과 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수사개시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과 의견 수렴으로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원 회복은 교육공

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만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에는 피해교원 보호와 엄중한 대처를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칠곡군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연수 개최

최원아 교육장,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학교 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해

경상북도 칠곡군 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69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교육의 변화와 우리 아이 학습코칭 전략'을 주제로 교육의 변화에 따른 동기, 인지, 행동을 바탕으로 한 학습의 성장, 학습로드맵 설계 방법, 학습관리 3요소 등을 설명하는 전문 강사 특강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의 역량 강화 및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연수 후 칠곡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회장 박재홍) 및 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배선미) 주관으로 교원보호 지지 선언식도 이루어졌다.

이날 선언문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 교육 신뢰, 학부모로서 먼저 교육,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침 존중,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칠곡교육지원청 최원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학교현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송광삼/기자



부산교육청, 깜깜이 교육 해소할 BASS 시범 오픈

AI·빅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플랫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8월 30일 사하구 당리중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력을 진단해 그에 따른 맞춤형 보정 학습으로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

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AI 학습지원 플랫폼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Busan Academic Support System)' 시범 오픈 행사

를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BASS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이력 등을 토대로 학생 학력 수준 진단과 분석, 맞춤형 학습 추천 등이 가능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다.

BASS는 학업성취도평가 등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학생들은 AI 진단과 분석에 따른 콘텐츠로 학습한 후 학력 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학 진단 결과 3수준인 학생이 '미적분' 단원을 학습할 경우, AI가 '미적분' 3수준에 맞는 강의와 문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에 대한 보정 학습을 각각 지원받는다.

BASS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BASS는 99%의 정답률 예측이 가능한 AI 엔진의 정확한 수준 분석, 3

천만 건 이상의 학습·강의 자료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교육이 가능한 AI 코스웨어다. 또한, 초등·중·고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요 과목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산시교육청은 BASS 활용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토대로 맞춤 과제 부여, 수업 전·중·개별 학습과 향상도 평가, 수업 후 가정 학습과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전략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AI 기반 학습 결과인 개인 리포트는 학생의 강점, 취약점 등 파악이 가능해 학부모 상담과 학습 모니터링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분개동 시에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맞춤 교육이 필수다"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BASS를 통해 개별 맞춤 학습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역량강화 연수 실시

자녀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부모 역할 제시

경산교육지원청은 6월 15일 경산교육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경산시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부모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광덕자기주도연구소 김중오 소장을 초청하여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바른 자기주도학습, 학교 수업의 중요성, 학습 능력 및 전략, 효율적인 자기주도학습법 등의 내용으로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경산교육지원청 이양군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청은 학부모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광삼/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양군**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도시 정비사업의 모든 것... 영등포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재건축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서울시 맞춤형 강사 지원

영등포구가 9월 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2023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시 정비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舊 뉴타운),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주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 동의 등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학교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재건축 정비사업(9.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9.7.) ▲신통기획·공

공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9.1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9.14.)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겸비한 맞춤형 강사도 지원한다.

각종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회차별 최대 10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공유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신/기자

2023 영등포구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일정 및 내용 안내

일시	주제	교육내용	강사
9월 5일(화) 16:00	1회차	재건축 정비사업	이현정 상무 (재건축사업자협회)
9월 7일(목) 16:00	2회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신정민 이사 (주택개발사업자협회)
9월 12일(화) 16:00	3회차	신통기획, 공공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주민학교)	이현정 상무 (재건축사업자협회)
9월 14일(목) 16:00	4회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이은주 상무 (주택개발사업자협회)

* 기타 분야사장은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후 02-2670-3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금지 캠페인 열어

구에서 위촉한 청소년 건강지킴이 '우리동네 술래잡기단' 및 건강환경조성 주민 단체원과 함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캠페인 열어



서울 서초구는 오는 31일 서초역 인근 학교 주변 담배와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금지 나인틴 @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에서 위촉한 '우리동네 술래잡기단'과 함께 서초키퍼링, 나비드림, 그린랩 등 지역 내 건강환경조성 주민단체원이 참여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및 구

에서 자체 제작한 불법 판매금지 경고 문구 스티커를 편의점 등 판매업소 출입문에 부착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7년 처음 결성된 '우리동네 술래잡기단'은 올해 동네 사정에 밝은 18개 동 통·반장, 봉사단원 등 20대~7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 42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업소 817곳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청소년 판매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 건강지킴이' 역할에 힘쓰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동네 술래잡기단' 및 지역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들이 건강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기자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대학 학보사 기자들에게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홍보

"세계 청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교류의 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이 30일 오전 구청 회의실에서 올해 처음 개최될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 주요 대학 학보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관내 경기대(경기대뉴스), 명지대(명대신문), 연세대(연세춘추), 이화여대(이대학보)를 비롯해 신촌 인근에 소재한 서강대(서강학보), 홍익대(홍대신문)의 학보사 기

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구청장은 이들에게 "세계 청년 대학생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교류의 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축제가 학보를 통해 캠퍼스 내에 널

리 알려져 더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도시 서대문'을 주제로 구청장과 학보사 기자들 간의 대화도 이어졌다.

2023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연세로, 스타광장, 명물거리, 창천문화공원 등 신촌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에는 국내 대학생, 해외 유학생, 각각 대사관 관계자, 국내외 관람객 등이 참여한다.

특히 관내 6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및 중앙기획단이 '글로벌 웨이브, 신촌 바이브(Global Wave, Sinchon Vibe)'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청년 중심의 축제 콘텐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만식/기자



서울 중구, 중장년 '보행안전 도우미 교육' 운영

서울 중구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중장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보행안전도우미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시민 기업 GKL((주) 그랜드코리아레저)의 후원으로 이뤄져 교육비, 교재비 등이 전액 무료다. 중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보행안전도우미로 근무를 희망하는 주민은 9월 7일까지 중구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본 교육 8시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후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 도우미 협동조합'이 중구청과 중구청 산하 발주 공사장에 채용을 연계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지난 7월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중구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전문가

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라며, "이번 보행안전도우미를 시작으로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중구보행안전도우미 교육생 모집

신청기간: 2023.8.24.(목)~9.7.(목)

서울 중구에서는 지역을 공헌하는 시민기업 (주)그랜드코리아레저 GKL의 후원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대상: 건설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를 희망하는 주민

신청방법: 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신청 또는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주민

교육내용: [1차] 9월 12일(화), 15일(목) 총 1회 / 보행안전도우미 기본교육 [2차] 9월 19일(화), 20일(수), 21일(목) 총 3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주요장점: 교육비, 교재비, 이수증 발급비 무료, 중구청 및 산하기관 발주 공공사업에 보행안전도우미 우선 배치 연계

주관: 서울 중구

문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 T. 02-2396-4278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이동호 영조지린 영풍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군

같이 먹으면 맛있는 봉화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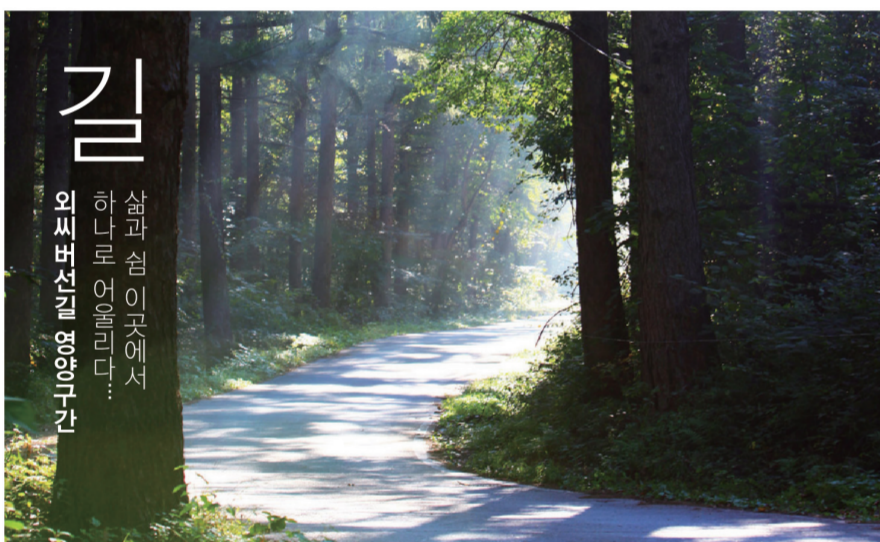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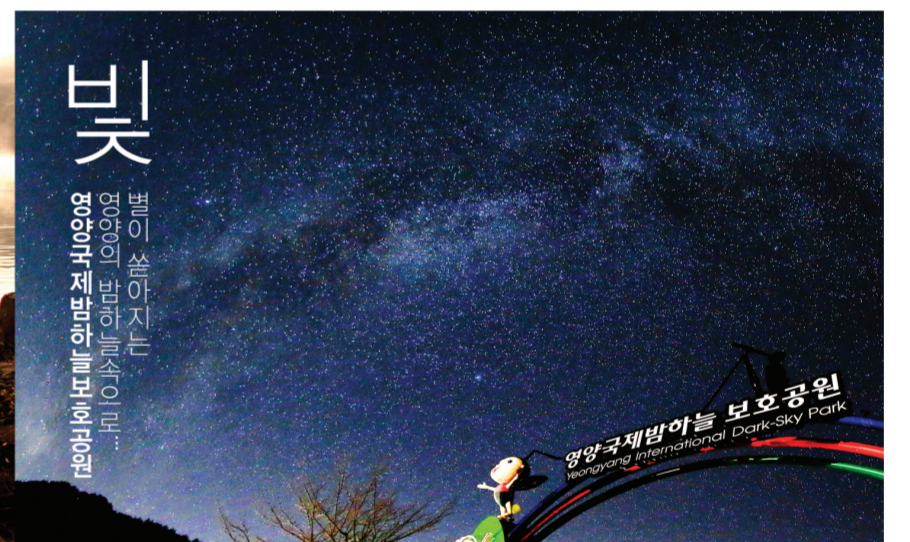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길

숲과 숲 이곳에서
아름답게 오세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물

영양의 밤하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서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이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